광주·전남 청소년 문화의 집 뒷전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감서 지적

광주 5.3% 11위, 전남 6.1% 10위

광주·전남지역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의무설치해야 하지만,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확충이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율은 7.1%에 불과하다. 3502개 읍·면·동에 248개만 설치돼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1곳 이상씩을 설치·운영토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치율이 매우 낮아, 정부가 법 준수를 해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의 경우 95개 동 가운데 청소년 문화의집이 설치된 곳은 고작 5곳으로, 설치율이 5.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297개 읍·면·동 가운데 18곳에만 설치돼 6.1%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광주보다 한 단계 높은 전국 10위다.

1위 제주(48.8%), 2위 강원(15.0%), 3위 울산(14.3%)와는 현격한 차이다.

시·군·구별로 1곳 이상씩 설치토록 돼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광주가 5곳(100%)으로 양호한 반면 전남은 10곳(45%)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보다 설치율이 낮은 곳은 충북과 울산, 단 2곳 뿐이다.

관련 사업비가 국비인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충당되는데 시·도 자율편성이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고, 지자체 의지로 설치 결정이 나더라도 자체 매칭 예산 확보가 어려워 집행이 더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연스레 이월액이 늘고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인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배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2007년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국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데 비해 정부의 청소년 활동 진흥책은 부족하다"며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입법 취지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활동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는 보다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 의지가, 그리고 중앙 정부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법원, 朴 구속 기간 연장 결정…"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석방 안 돼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최장 6개월에 걸쳐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기소 때부터 6개월이다.

그간 박 전 대통령 1심 형사재판은 쟁점이 방대하고, 심리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지난하게 진행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내에 1심 심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속 기간이 만기됨에 따른 예상이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새롭게 청구했다. 첫 영장 발부 당시 혐의와 다른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뉴시스

선녀 퍼레이드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열린 제7회 삼선동 선녀축제에서 선녀분장을 한 연기자들이 장수마을-돈암시장-삼선분수마루까지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 월평균 아동학대 신고 20건↑…대책 시급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각각 188건·189건

최근 2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월평균 아동학대 신고가 2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전남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각각 188, 189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40명이 검거돼 18명이 기소됐다. 전남은 84명이 검거돼 30명이 기소(3명 구속)됐다.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광주 211건, 전남 261건이다. 광주에서는 47명이 검거돼 24명이 기소(2명 구속)됐고, 전남에서는 142명이 검거돼 60명이 기소(9명 구속)됐다.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아동학대로 14명의 어린이가 숨졌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 3759건, 방임 451건, 정서학대 345건, 성학대 297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를 당하는 10명 중 8명의 아이들이 부모·친인척에게 학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증가세다. 2015년 6442건에서 2017년 8월 현재에만 8380건이다.

소 의원은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범정부적인 합동점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인 행태를 보이는 아동학대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를 지원·예방할 수 있는 아동보호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중국, 인종차별적인 전시 '논란'

중국에서 아프리카 흑인 소년을 고릴라로 비유하는 등의 인종차별적인 전시가 열렸다 막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지난달 말 '이것이 아프리카다'라는 주제의 전시가 열렸다. 작품들은 두개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로, 한쪽에는 아프리카인들의 얼굴이 다른 한 쪽에는 이와 비슷한 동물의 사진이 붙어있었다.

특히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흑인 소년의 사진엔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고릴라 사진이 놓여있었다. 다른 작품들 역시 흑인 사진 옆에 개코원숭이와 치타 등의 동물들이 자리했다.

전시회 큐레이터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중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의 항의에 결국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약 14만1000명의 관객들이 이번 전시를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든 작품 속 사진들은 20번 이상 아프리카를 방문한 건설업자이자 후베이 사진작가협회 부회장인 위 후이핑이 촬영한 것으로 상도 받았다.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에서 인종 감수성은 종종 갈피를 잡지 못할만큼 낮은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중국의 세제업체 차오비의 TV광고도 논란이 됐었다. 한 중국 여성이 흑인 남성의 입에 세제를 넣고 세탁기에 밀어넣자 동양인인 중국인으로 변해 나온다는 내용이었다.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정작 차오비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점점 더 중요한 무역상대국이 돼 가고 있지만, 문화적 고정관념이 중국의 대중적인 담론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버니지아 주립대서 총격사건 발생

미국 버지니아 주 피터스버그에 있는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행해 적어도 한 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현지 당국이 14일 밝혔다.

당국과 지역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립대학 국내에서 이날 밤 총기난사가 일어나 한 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으며 캠퍼스는 즉각 봉쇄됐다.

총에 맞은 피해자는 급히 부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용의자 경우 흰색 스웨터를 입은 남자인 것으로 목격됐다고 언론은 전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 구내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경찰이 출동해 캠퍼스를 폐쇄하고서 범인과 추가 피해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구내 경찰은 주민과 학생들에게 현장 지역을 떠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버지니아 주립대학 측은 웹사이트에 홈커밍 주말행사를 벌이던 중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밝혔다.

앞서 텍사스 주 러벅에 있는 텍사스 공과대학에서도 지난 9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숨졌다.

텍사스 공과대학의 크리스 쿡 대변인은 "학교 경찰이 한 학생의 방에 들어가 마약과 마약 용품의 증거를 발견했고, 이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하던 중 용의자가 갑자기 총을 꺼내 경찰관의 머리를 쏴 숨지게 했다"고 전했다.

쿡 대변인은 용의자의 신원이 홀리스 대니얼스(19)라면서 그가 경찰관을 살해하고서 그대로 달아났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북부·중부 폭우 사망자 68명로 늘어

베트남 북부와 중부에 내린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지금까지 68명이 숨지고 34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재해 당국자들이 15일 밝혔다.

국가재난예방대책 중앙통제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외에도 32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수해로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이 상당수 파손됐으며 가축 23만마리 이상이 폐사했다고 중앙통제위는 발표했다.

폭우는 지난 10일부터 북부와 중부 지역에 쏟아졌으며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호아빈성으로 산사태가 일어나 20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300명의 군인과 경찰, 민병대가 동원돼 실종자 8명에 대한 수색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중앙통제위는 호우가 시작된 지 사흘간 가옥 1만6700채가 침수됐으며 제방 2곳이 파손되면서 농경지 3만9300여 ha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제20호 태풍 카눈이 베트남 북부 통킹만으로 접근하면서 북부와 중부에는 장대비가 재차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